

# LÉVY GORVY

레비고비 런던, 정상화 화백 1960-70년대 작품전 개최

정상화: 발굴, 1964-78

Chung Sang-Hwa: Excavations, 1964-78

2020년 2월 28일 - 4월 25일

레비고비  
22 올드 본드 스트리트  
런던

오프닝 리셉션: 2020년 2월 27일, 6-8 PM



1970년 일본 고베 작업실에서의 정상화 화백

런던—레비고비 런던은 정상화 화백의 50년 작가 인생에서 주요 형성기를 이루는 1960-70년대 작품전 <정상화: 발굴, 1964-78>을 개최한다. 메이페어에 위치한 레비고비 런던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 화단의 거장인 정 화백이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국제 아방가르드 운동으로부터 깊은 영감을 받았던 시기에 제작된 그의 주요 작품들을 소개한다. 출품작들은 정 화백이 걸어온 개념적, 기술적 전개 과정을 드러내며 이후 지극히 독창적이고 정교한 작업 방식으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한 그의 발자취를 되짚는다. 또한 1960-70년대 작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다양한 국제적 미술 흐름을 함께 조명함으로써 정 화백의 독자적인 회화세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사유와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해 뉴욕 전시에 이어 런던에서 개최되는 <정상화: 발굴, 1964-78>展은 갤러리 현대와의 협력으로 기획되었다.

정 화백은 일제강점기였던 1932년 경북 영덕 출생으로 6.25 전쟁 휴전 3년 후인 1956년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작가의 초기 작업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유럽의 앵포르멜로부터 영감을 받은 한국 앵포르멜(비정형)을 대표한다. 출품작 중 가장 초기작인 <작품 64-13>(1964)은 어두운 색감과 전면에 드러나는 조형적 요소, 작가의 붓질에 담긴 제스처로써 당시 그의 화법을 대변한다.

1960년대 들어 정 화백은 <작품 65-2>(1965)와 <작품 68-32>(1968)에서 드러나는 적토색, 짙은 주황색 등을 중심으로



사진: Elisabeth Bernstein.

구체적인 색채 관계를 실험하며 동시에 카오린(고령토)과 같은 비전통적 재료를 활용한 텍스처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했다. 1963년에는 파리 갤러리 람베르 (Galerie Lambert)에서 한국의 젊은 추상 화가들을 소개하는 <젊은 한국 작가 Les jeunes peintres coréens>展에 초대되었으며, 이는 1967년 작가가 파리로 이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파리에 거주하며 정 화백은 현지 갤러리와 미술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보다 자유로운 예술 환경 안에서 그만의 비전통적인 작업 방식을 완성해 나갔다.



<작품 65-2>(1965). 캔버스에 아크릴, 카오린과 유채. 162.2 x 130.3 cm.  
사진: Elisabeth Bernstein.

1969년 일본 고베로 이주한 정 화백은 그곳에서 요시하라 지로 (吉原治良), 시라가 카즈오(白髮 一雄) 등 아방가르드 그룹 구타이(具体)의 작가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이 시기 제작된 작품들은 <작품 K-3>(1970)와 <작품 70-9-15>(1970)에서 드러나듯 직관적으로 완성된 추상적 구성으로 보이지만 사실 작품의 표면을 반복적으로 들어내고 메우는 작가만의 엄격한 프로세스를 거쳐 캔버스에 그린 원의 형태를 전략적으로 드러내고 감추며 완성된 작업들이다. 이후 1970년대 후반 <무제 78-11-29>(1978)와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직사각형 격자(그리드) 형태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계속해서 자신만의 체계적인 작업 방식을 발전시켜 나갔다. 1977년 파리로 돌아간 정상화 화백은 15년 후 귀국해 경기도 여주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발굴>展에서 조명하는 20년의 시간은 카오린과 아교를 활용한 작가만의 혁신적인 재료와 더불어 아크릴과 유채, 흑연, 한지 등으로 독창적인 레이어링을 완성하는 그만의 작품세계가 견고히 형성된 시기이다. 현재까지 끊임없이 자신만의 작업 프로세스를 연마하며 작가는 캔버스의 표면을 칠하고, 덧붙이고, 떼어내고, 메우는 방식으로 매 작품과 교감하며 자신의 예술적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 단계의 정교하고 세밀한 기법으로 완성되는 프로세스를 통해 정 화백은 저부조(bas-relief)를 연상시키는 섬세한 표면의 회화세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며 단색화 운동은 물론 한국 전후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전시를 기념하는 작가 도록이 4월 3일 출간된다. 도록에는 작가와의 인터뷰, 비평가 베리 슈왑스키 (Barry Schwabsky)의 평론글과 데이비드 매켄 (David McCann) 하버드대학교 한국문학 교수가 번역한 신영복 작가의 글이 수록될 예정이다.

## 작가 소개

정상화 화백은 1960년대부터 수많은 국내외 주요 전시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파리 비엔날레 (1965)와 상파울루 비엔날레(1967, 1973), 광주 비엔날레 (2000), 폴란드 포즈난 메디테이션 비엔날레(2008)에 참여하였다. 2011년에는 개인전 <정상화: 고고학의 회화 Chung Sang-

Hwa: Painting Archeology>>가 프랑스 생테티엔 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de Saint-Étienne Métropole, France)에서 개최되었다.

정 화백의 작품은 시카고 현대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아부다비 구겐하임 미술관, 워싱턴 허시혼 미술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홍콩 M+ 미술관, 생테티엔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시즈오카현립미술관, 도쿄도현대미술관 등 국내외 우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작가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 여주를 오가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 레비고비 (Lévy Gorvy) 소개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évy)와 브렛 고비(Brett Gorvy)에 의해 설립된 레비고비는 근현대와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생존 작가는 물론 작가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폭넓은 교류를 시도하는 레비고비는 미술사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 도록 및 전시 관련 서적 출간 또한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현재 뉴욕 매디슨가 909 번지, 런던 메이페어와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세 곳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인 레비고비 럼블러(Lévy Gorvy with Rumbler)를 통해 전 세계 개인 컬렉터 및 미술기관에 맞춘 프라이빗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비고비 뉴욕 909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1, + 1 212 772 2004

레비고비 런던 22 Old Bond Street, London W1S 4PY, + 44 (0) 203 696 5910

레비고비 홍콩 Ground Floor, 2 Ice House Street, Central, Hong Kong, + 852 2613 9568

레비고비 취리히 Kirchgasse 50, CH-8001, Zürich, + 41 44 260 44 00

www.levygorvy.com | @levygorvy

### 홍보 담당자

Marta de Movellan, Lévy Gorvy, marta@levygorvy.com

Sam Talbot, sam@sam-talbot.com

이미지 저작권 © 정상화. 레비고비 (뉴욕), 갤러리 현대 (서울) 제공.